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김치(KIMCHI)신학 세미나 은혜 가운데 진행

우리 교회 부설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이 주최하는 제 5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가 지난 25일에 시작했다. 현지 목회자를 초청하여 영적각성의 기회와 신학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국의 교회를 갱신시키고 나아가 세계복음화에 기여케 하고자 해마다 개최하는 김치세미나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러시아 목회자들이 참석하였다. 본래의 계획은 32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일곱분이 미참하게 되어 참석자는 총 25명이다.

개강예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개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윤 목사가 설교를 했고 한국교회 역사, 영적갱신과 교회성장을 위한 성경적 원리, 소그룹 운동, 한국교회 성장의 배경, 신학교육과 전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모든 강의와 현장학습 등을 통해 비전과 기도의 폭이 넓어졌으며 자국의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깨달아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통해 열심있는 기도와 성경적인 설교,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회성장의 중요요소가 됨을 직접 보며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늘(29일, 주일)은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 중인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의 각 교회학교를 방문하여 교회 교육의 현장을 보게 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간증도 하게 될 것이다.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배우고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일은 YMCA를 방문 복음화장과 교회개인을 위한 두 기관의 국내외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김치세미나의 모든 일정은 6월 2일(목)에 평가회와 폐회예배를 드림으로써 마치며 6월 3일(금)에 출국한다.

모든 진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며 강사와 통역자와 봉사자들이 은혜 가운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지원이 요청된다.

특별새벽기도회

'94 홍해작전 임박

참모조직 확정 발표

해마다 6월 6일에 개전하는 홍해작전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주제 아래 올해도 개전한다. 새벽 5시에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의 6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계속될 진군을 위해 작전 본부는 다음과 같이 주제와 일시, 참모 조직을 확정, 발표하였다.

주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이사야 43장 19절)

일시: 1994년 6월 6일(월) - 6월 19일(주일) 새벽 5시

강사: 이종윤 목사

참모조직

사령관: 이종윤 목사

참모장: 이영세 장로

기획참모: 유윤진 김재호 서문석 임상현 김인수 오형철

행정참모: 이영렬 장용휘 김영준 홍성주 김형택 이원영

예배참모: 최종시 임진태 성준경 이계홍 오광한 류중관

교구참모: 노문환 권상석 권장철 이태상 김승현 장양일

홍보참모: 김광신 이영기 박동춘 정동호 박정인 허숙

봉사참모: 정병무 최난수 이재권 허찬우 박민호 이기룡

진행참모: 박철훈 원필현 황정욱 한길동 김용호 고영철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제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내일 종강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해 「강해설교와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3월에 개강하여 계속되어 온 목회자세미나 제 5학기가 내일 10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종강예배를 드린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전국에서 오신 목회자의 열심과 한국교회갱신과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한 성도들의 헌신이 어울려졌던 한학기였다.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는 9월 6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행사 게시판

1994. 5, 6월

제 5학기 목회자세미나 종강
5월 30일(월) 제 5차 김치신학세미나 수료식
6월 2일(목) 제 5차 김치세미나 참가자 출국
6월 3일(금) '94 홍해작전 시작
6월 6일(월) '94 홍해작전 승전예배
6월 19일(주일) 공동의회
6월 19일(주일) 새가족 환영회
6월 23일(목) 안수집사, 권사 선거
6월 26일(주일)

창세기 강해

노아의 타락

(창세기 9장 18 ~ 19절)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불리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타락한 장면과 노아의 실수를 조롱한 함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1. 죄를 지은 노아

노아의 타락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혹과 시험을 스스로 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창 6:19). 또한 의를 전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벧후 2:5).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노아가 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2: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진리되신 성경말씀은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할 존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육백세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동안 의인으로서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노아는 이전 행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 중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한다해도 끝까지 그것을 일관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행과 신앙이 미래 성공의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늙어서까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신앙을 내세우고 자랑하면 마치 베드로처럼 스

로 낭패를 당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떨어지게 되시 십상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나 그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나 잠시 방심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도 죄를 지은 후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알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했지만 오늘 본문의 노아는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감출만큼의 의지와 수치를 깨달을 지성조차 마비되리만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에 지배 당하는 모습입니다.

2. 저주를 받은 함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꿀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조용히 가리워주고 감출 줄 알아야 할 터인데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마구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함의 네 아들 중 하나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아버지 함이었는데 저주는 아들인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성경의 이치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인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저 옛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며 승리를 장담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광경을 목도한 후의 그의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영적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함의 마음 자세는 아버지의 실수를 가리우고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어, 권위를 떨어뜨리고 당대에 의인으로서 의를 전하는 사역을 중단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아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 것이 함의 잘못된 태도라면 노아의 다른 자녀들의 태도는 그와 달랐습니다.

3. 축복과 저주

노아는 수리가 깨었습니다(24절). 본연의 자세

로 돌아온 것입니다. 노아는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지만 요나가 죄를 범한 후에도 다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가 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사나 문화사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은 창세기 9 - 10장에 걸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아에게 아들들이 각각의 대륙으로 퍼져 나가면서 언어가 변해가도 오늘 본문의 결과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곤 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저주, 곧 함의 자손을 향한 저주와 셈, 야벳에게 베푼 축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셈에게 내리신 축복의 말씀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144:15). 셈의 계보를 통해 마침내 메시아가 오는 복을 받습니다. 야벳은 창대케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셈이 버린 장막에 야벳 족속이 들어가 셈의 자손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셈의 장막에 야벳 족속이 거룩한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 순례자 컬럼 ◆

거짓된 가면은 벗어야

배우들의 분장술은 대단한 것 같다. 젊은이가 노역을 맡게 될 경우 외모만이 아니라 행동도 말도 노인처럼 해야 한다. 악역을 맡게 되면 갖은 추태와 원치않는 말도 토해내야 훌륭한 배우로서 찬사를 받게 된다.

정치하는 이들이나 사업하는 이들이 국제 무대나 국민 앞에서 두터운 가면을 쓴 채 연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소로움보다는 측은의 감정을 갖게 된다. 국익을 위해서 또는 사업상이라는 대의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너럴대로의 목적이 있겠으나 가면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술집에서 웃음을 띠는 여인이 그 일이 좋아서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환경과 조건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은 가면을 벗고 제 모습을 보일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내가 쓰고 있는 그 거짓의 가면부터 벗게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자.



Я ПОМОЛЮСЬ ДЛЯ РОССИИ

야 파팔류스 드라 리씨 - 이 ("러시아를 위해 기도겠습니다"라는 뜻)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오신 분들의 필요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의 프로필과 기도제목을 신는다.

▶ 아나톨리 베프코비치 라속

1. 유즈노 사할린스크 복음주의 침례교회 목사
2. 1963. 8. 11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1975년 사할린에서 목회시작.
1979년 사할린에 최초의 복음주
의 교회건축. 현재 250명출석교
인 중 100명 이상이 세례교인. 유



즈노 시의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싶어 하지만 교회가
너무 작음. 1990년 이후 사할린의 다른 도시(코르사코프, 홈스크, 스
미르니히, 오하)에 전도하였고, 4개의 교회가 개척됨.

바른 신앙의 전파와 사할린 모든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비전이
있음. 목회자 양성과 사할린의 섬, 장애인, 환자, 수감자 들을 위한 사
역도 하고 있음.

5. ① 정교회의 방해로 전도에 장애가 있음
- ② 전도를 위한 재정이 필요
- ③ 육신의 건강(결장염이 있음)
- ④ 오하 시(市)의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길
- ⑤ 스미르니히 시 교회의 이단종파 문제 해결을 위해
- ⑥ 유즈노 사할린스크 교회의 새예배당 건축의 재정을 위해(250석
규모 / 3만달러)
- ⑦ 코르사코프 시 교회건축의 재정(2만 달러)
- ⑧ 북쪽 섬 교회에는 전도자가 필요함

▶ 바체스라브 세요노비치 블리토프

1. 보스프렌스크 복음주의 침례교회 목사
2. 1963. 9. 1일생
3. 부인과 3남
4. 복음적인 설교와 심방, 예배 인도, 주일학교 공
부 인도를 하고 있음. 새로 개척한 교회는 75명
이 출석하고 있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
가 3년 전에 이웃 도시에 새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약 30명이 출석함. 예고리엠프스키 시에 새로운 교회를 하
나 더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면 추진 중.



5. ① 교회 처소가 필요 - 우리나라에서 건축은 아주 난제임.
- ② 우리교회 출석교인의 80%가 여성도로, 남자 형제들이 필요함.

▶ 이름

1. 소속교회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상황, 목회비전
5. 기도제목

▶ 볼로호프 바벨 유리에비치

1. 모스크바 바르샤프코예 쇼세 복음주
의 침례교회 산하 성경학교 학장
2. 1955. 5. 27일생
3. 부인과 2남 4녀
4.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 침례교회
산하 주일학교 조직 담당 지원이
며, 성경학교 학장으로 주일학교 교



사 교육, 교육방법 프로그램 개발, 주일학교 교사 연수, 성경학교 행
정 조직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참가자를 위한 물질적 후원회 조직.

5. ① 행정조직을 위한 기구 구입을 위해 재정 필요(컴퓨터, 샌디자포
르, 스튜디오 기구 등)
- ② 러시아 주일학교 교육의 성장을 위한 출판 비용과 인력이 필요.

▶ 파도쇼노프 유리 바실리에비치

1. 쾰페르 부르그 복음주의 침례교회 목사
2. 1949. 3. 14일생
3. 부인과 2남 2녀
4. 주 도시에서 복음 사역 중. 재적 300명 이상인
24개 공동체 방문. 전도집회와 예배 조직. 양육
과 심방 등.
5. ① 주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길
- ② 교회의 부흥과 예배당 건축을 위해
- ③ 쾰페르 부르그 시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 ④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현재 러시아의 난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 류드밀라 빅토르브나 황

1. 모스크바 선교 장로교회 통역(고려인)
2. 1944. 2. 4.일생
3. 1남 1녀
4. 모스크바 선교교회는 1991년 10월에 설립된 개
척교회로 1500명 이 출석. 교회의 중요사역은 찬
양전도, 신학교에서의 목사 양성, 성경공부, 군복
음화, 교도소 전도, 병원전도, 출판사역, 신앙도서 번



역 중.

5. 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Я ПОМОЛЮСЬ ДЛЯ РОССИИ

- ② 러시아군대 복음화를 위하여
- ③ 교회산하 장로회 음악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을 위해
- ④ 러시아 각 가정에 성경이 한권씩 비치되도록
- ⑤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 ⑥ 그리스도 안에서 한인 성도와 러시아 성도의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 이름

1. 소속교회 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상황, 목회비전
5. 기도제목

▶ 드로즈도프 알렉산드르 바실리

예비치

1. 모스크바 시 베드로 - 바울 복음주의 루터 공동체의회 대표, 전 도자
2. 1954. 10. 29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5월부터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림. 전해받은 구식 공동체 건물 수리에 관한 행정 조직. 공동체는 1991년에 조직되었음. 1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300명으로 부흥하였음. 이후 공동체 성장은 목사 양성과 좋은 성가대, 주일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달려 있다고 봄.
5. ① 공동체를 더 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씨 목 사님을 주께서 도우시사 그가 하는 일에 결실이 있도록

▶ 겐나지 꾸지미치 일코프

1. 우스리스크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42. 3. 20일생

3. 부인과 3남 2녀

4. 우스리스크 시 지역교회 목사로, 연해주와 독으로 있음. 3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4년이 지난 지금은 700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음. 2개 교회 6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개척교회도 돕고 있음.

5. ① 연해주 복음화를 위해

② 변경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변경에는 교회가 아주 적고 도시에만 4-5개 정도의 교회가 있을 뿐이어서 많은 소도시들과 시골지역 주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음)

- ③ 변경도시들에 신앙서적을 갖춘 작은 상점들을 열 수 있도록

▶ 알렉산드르 존 골락

1. 오레호보 주예보시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54. 12. 28일생

3. 부인과 1남 3녀

4. 1990년 1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7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와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으며 클럽과 학교복음화에 비전이 있음. 교회건축이 과 제임.

5. ① 교회건축을 위해

②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③ 교회의 평안과 일치를 위해

④ 가정의 영적,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결단하는 일에 한 마음되도록)

▶ 니콜라이 니콜라이예비치 마슬레노프

1. 우스리스크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 니콜라이 알렉산드르 사볼레프

1. 첼라벤스크 시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51. 4. 15일생

3. 부인과 2남 1녀

4. 1년 전 교회 개척, 현재 90명 출석. 개인전도와 그룹성경공부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음. 체라벤 스키와 스페르들롭스키 주의 감독으로 일하면서 그곳 교회들을 방문하고 조직하는 일을 하고 함.

5. ① 교회건축을 위해 - 현재 문화회관을 빌려 쓰고 있는데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고 언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임.

② 축호전도를 위한 미니버스와 교회들에 보낼 신앙서적, 교회에 놓을 전기 오르간이 필요.

▶ 포킨 발레리 베블로비치

1. 복음주의 기독교 라잔 침례교회 감독

2. 1938. 1. 25일생

3. 부인과 아들부부

4. 라잔 주 교회그룹 성경공부 지도, 성경 강해, 전도의 사역을 하고 있음. 새교회 건축을 지도하고 있음.

5. 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② 새 교회건축을 위하여

③ 건축을 위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 겐나지 이바노 아브라모프

1. 하바롭스크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감독

2. 1955. 7. 20일생

3. 부인과 4녀

4. 1991년에 개척한 교회로 현재 450명의 성도가 모임.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있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상담하며 사역하고 있음. 해마다 30~50명의 성도가 세례받고 있음.

음.

5. ① 아시아 극동지역 교회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② 우리 가족을 위하여

③ 러시아 극동 사역을 위한 전도자 양성을 위하여





Я ПОМОЛЮСЬ ДЛЯ РОССИИ

2. 1959. 6. 30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1978년에 2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350명이 출석하고 있음. 주 3회 (주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0시)예배를 인도하고 수요일에는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병원선교와 도서관 선교에 힘쓰고 있음.
5. 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②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 **줄라파렙스키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1. 모스크바 구역 연합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장로 - 목사
2. 1953. 8. 11일생
3. 부인과 2남 1녀
4. 모스크바 시의 새 교회들이 생기면 교제를 주선하는 일과 심방하는 일, 새 교회목사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맡고 있음. 2000명 이상의 성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과제로 안고 있음.
5. 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경외심과 지혜를 허락하시도록
② 모스크바 시에 새로이 개척되는 교회들을 위해
③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④ 모스크바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⑤ 하나님과 만날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해 주시길

▶ **아브라쉬킨 보뜨르 페드로비치**

1. 모스크바 부제노비 복음주의 침례교회 목사
2. 1945. 7. 12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1993년 40명으로 시작, 현재 95명 출석. 전도와 구제, 어린이 복음화와 양육, 환자 간호, 출판 등의 사역을 하고 있음.
5. ① 교회에서 하는 7개의 프로그램에 축복하시어 잘 진행되도록
②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후원회 회장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정부와 군대, 공공 조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 **유리 니콜라예비치 노비코프**

1. 모스크바 그라스노고르스까야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51년생



3. .
4. 1991년 8명으로 시작, 3년동안 20명이 세례를 받았고 현재 28명이 출석하고 있음. 설교와 심방, 상담 등을 통해 사역함.
5. ① 시급한 교회 건축을 위해
② 교회 안의 일치를 위해
③ 성경을 더 열심히 읽도록

▶ **이름**

1. 소속교회 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상황, 목회비전
5. 기도제목

▶ **알렉산드로 페드로비치 아비조노프**

1. 모스크바 기독교 연합교회 감독
2. 1948. 12. 30일생
3. 부인
4. 교회감독, 전도집회 인도. 1992년 정식으로 등록된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교회는 476교회가



연합되어 있고 76개 교회가 등록 하였음. 성도는 4백 20만 정도

5. 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② 성직자들을 위한 신학교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부탁드립니다.
③ 예수님께서 더 많은 개신 교회를 러시아와 CIS에 보내주시기를

▶ **넬리 미하일로브나 마끼엠프스카야**

1. 모스크바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교회 통역(영어 통역)
2. 1941. 4. 20일생
3. 남편과 1녀
4. .
5. 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노동을 귀히 여기고 성실하고 선하며 어른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② 우리 젊은이들이 고난 많은 러시아의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잘 헤쳐가도록 도와주십시오!



▶ **이그나젠코 빅토르 블라디미로비치**

1. 스몰렌스크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55. 2. 14일생
3. 부인
4. 현재 300명 교회로 대중전도와 성도들이 일대일 전도에 힘써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주일에 세번 예배, 심방, 다른 주에 위치한 교회들을 방문방문하며 보조. 성경공부를 함.

5. ① 스몰렌스크 교회를 위하여
② 스몰렌스크 주에 목사와 전도자가 필요하며 교회 교사의 교육을 위한 장소가 필요.
③ 젊은이들에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열망과 능력이 주어지도록

▶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세꾸쉬**

1. 모스크바 열린 축복교회 목사
2. 1954. 8. 23일생
3. 부인과 2녀
4. 10명의 성도로 시작하여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은 84명의 성도가 출석. 가족전도와 성경공부가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것으로 여겨짐. 주된 사역은 복음전도 예배, 성경공부. 금식기도예배, 심





Я ПОМОЛЮСЬ ДЛЯ РОССИИ

방, 성경학교와 일반학교 사역, 성도들의 부모나 자녀의 전도.

5. ① 일반학교를 보조할 예산이 부족
- ② 앞으로의 교회성장을 위하여
- ③ 구약에 관한 신앙서적이 필요
- ④ 목회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도자 양성을 위해

▶ 이름

1. 소속교회 및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교회연혁, 상황, 목회비전
5. 기도제목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

5. ① 러시아에서는 어려운 교회건축을 위해
- ② 러시아 정교회의 반대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 ③ 바른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 ④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 예브겐 니콜라이 일리치

1. 아지몹스카야 교회 목사



2. 1944. 11. 11일생
3. 부인과 1녀
4. 1989년 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200명 정도로 성장. 주일학교, 성가대, 청년부 조직이 있고 교회안에 출판소가 있어 신앙서적을 간행하고 있음.
5. ① 문화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교회건축이 시급함(땅도 있고 설계도 되었음)
- ② 전도하여 부흥할 수 있기를
- ③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 베셀 알렉산드로비치 레웨프니코프

1. 보로네즈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27. 3. 20일생
3. 부인과 1남 2녀
4. 보로네즈 교회의 목회와 교육 담당. 30여개 교회를 지도하고 있고 두곳 기도원의 5분 목사를 지도하고 있음.
5. ① 교회의 부흥을 위해
- ② 교회 봉사자들에게 축복을.
- ③ 기도원 건축을 위해
- ④ 소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 뱌프르 마하이로비치 예로쉬킨



1. 복음주의 침례교 베다니 교회 목사
2. 1952. 11. 1일생
3. 부인과 3남 2녀
4. 1992년 3가족이 모여 교회 설립. 작년 12월 5일부터 주일학교 시작. 문화센터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으며 성경공부와 구제, 전도등의 사역을 하고 있음.

5. ① 한국교회의 협력과 이해증진
- ② 모든 러시아 교회들의 사역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기를

▶ 클라쉴크 뱌프르



1. 브란스크 시 침례교회 원로목사
2. 1942. 7. 5.일생
3. 부인과 5남 1녀
4. 2년 전 교회 설립, 현재 25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음. 기도원 건립함.
5. ① 모든 사역의 결실을 위하여
- ②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 ③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축을 중단한 교회들이 재기할 수 있기를

▶ 유리 끼릴로바치 씰코



1. 옴스크 시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교회 목사
2. 1952. 2. 28일생
3. 부인과 5남 5녀
4. 예배와 세례, 성경공부, 상담과 그룹토의 등을 통해 사역 중.
5. ① 주일학교 설립을 위해
- ② 한국에서 더 많은 선교사 지원이 있기를
- ③ 교도소와 어린이 선교, 구제, 봉사 등의 비전을 잘 수행하도록

▶ 베셀 드미트리예비치 싸블렌코

1. 모스크바 쉬벨롭스키 부활 침례교회 목사
2. 1927. 3. 20일생
3. 부인과 1남 2녀
4.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교인들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를 인도하고 노인과 고아원을 돕고



러시아어로 인사합시다 (2)

- 슬라와 보구! -

СЛАВА БОГУ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뜻으로
모든 좋은 일을 기원하는 매우 일상적인 인사

- 하나님(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호(이수스) 류비트 바스 <БОГ(ИИСУС) ЛЮБИТ ВАС>
-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야 베말류스 드라 러씨~이 <Я ПОМОЛЮСЬ ДЛЯ РОССИИ>
- 안녕히 가십시오.
더 스비다니야 <ДО СВИДАНИЯ>

제 5차 김치 신학 세미나 현장스케치

영접

김치세미나가 열리기 하루 전 날인 24일, 하바로프스키에서 출발한 세명의 목회자가 먼저 도착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25일,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10시에 도착하기로 했던 모스크바행 비행기가 연착. 오후 두시가 넘어서야 모스크바에서 온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긴 여행에 매우 지친 모습들이었으나 반가움과 기대감으로 김포공항 청사에는 활기가 번져갔다.



적극적인 강의 참여와 진지한 토론

강사들은 모두 영어로 강의를 하며 러시아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찬양대실에 마련된 통역실에서 행해지는 동시통역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역사와 성경적 교회성장원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참석자들은 많은 수난 속에 처해 있는 러시아 교회를 떠올리며 자국복음화를 위한 적용점을 모색하는 데 분주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강의 후 토론은 너무도 진지했다. 젊은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물어 왔고 남자들이 교회에 적은 이유와 그들의 복음화에 대해 묻기도 했다. 어떤 참가자는 한국교회의 교파분열 등 부정적 측면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냐고 예리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앞 페이지들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도착 당시 대부분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현재 러시아의 경제적인 난관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와 예배당 처소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며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새 교회당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것으로 시각의 변화가 생기는 듯했다.

환란과 핍박 중에 지켜 온 신앙

어느 장로님대에서 열린 화기에애했던 환영만찬. 간증을 통해 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옥된 경험들이 있었다.

‘공산권’ 복음화의 어려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문화권별로 대분하여 행해지는 것이 김치신학세미나의 특성인데 러시아는 문화권의 분류에서 공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 아직도 공산주의의 영향이 채 가시지 않은 나라들의 복음화와 나아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쉬임없이 기도해야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어디서나 찬양!

식사를 마칠 때마다 한 목소리로 일제히 무어라 외치는 것이 펍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듯 했다.

참석자들은 강의가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관광 도중이라든가 모두가 모이는 때면 기회가 닿는대로 어디서나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러시아 특유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긴다. 문화적, 음악적 수준이 본디 높은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시내 관광 중에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는 남산, 명동 등지에서 많은 한국인들의 시선을 모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부르는 찬송이지만 지나던 이들이 발길을 멈추고 서서 바라보고 사진도 찍으며 기쁨으로 그 대열에 동참하였다.

모든 기쁨과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했다.

- 다음페이지에 계속 -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상의 어려움, 현지 공항 사정 등 어려움이 겹쳐 일곱 명의 목회자들이 끝내 오지 못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먼 길을 오신 분들과 그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곳 성도들의 수고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못 오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교회에 도착하는 길에서 비는 멎었고 모든 먼지가 씻겨온 한국의 푸르른 하늘이 신선하게 드러났다. 별관에 마련된 식당의 모든 것은 누가 보아도 정성을 쏟았음을 알 수 있었다. 권사님과 남녀 집사님들이 천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각양의 은사를 따라 시설을 보완하고 장식하고 음식을 장만한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5차 김치세미나 현장스케치 / 앞페이지에서 계속

새벽기도회를 배우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새벽기도회 시간에 가장 큰 도전을 받는다. 자국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전략은 기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교회들도 보통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예배 혹은 집회를 가지지만 새벽기도회는 없다. 참석자들은 본국에 돌아가면 이 일을 확산해 갈 것이다.

우리도 새벽기도회시간을 충실히 활용해 보자. 일년 내내 못한다면 이번 러시아 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와 홍해작전을 기간을 통해 새벽 미명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보자.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러시아에도 복음의 꽃이 피게 하소서
2.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조화롭게 운영되게 하소서
3. 홍해작전을 통해 기도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4.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목회자의 영적 각성과 한국교회의 갱신이 있게 하소서

광야의 소리

가랑비처럼

“어 제 내린 비는 적은 양이었으나 가랑비였기 때문에 해갈에 충분했습니다” 아침 뉴스의 내용은 의외의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유난히도 가물었던 올해 봄, 5월을 시작할 때 즈음에야 내리던 비는 겨우 가랑비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농부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시원한 비라도 주룩 주룩 와 주었으면 했는데 가랑비였기에 해갈에 충분했다니...

‘가랑비였기 때문에!’

천천히 스며들어 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고 뿌리에 닿아 굵게 쏟아진 많은 양의 비보다 더 큰 생명력을 만물에 불어넣어 줄 수 있었다는 평범한 자연 진리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하루 종일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생각컨대, 가랑비와 같이 미미한 것 같으나 그것이 지속성을 가짐으로써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시골 이름없는 할머니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60만 대군의 방위력보다 더 클 수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 모르게 하는 수고와 배금주의가 만연한 이 세대에서는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 같아보이나 그 자신과 그의 후손이 속한 사회가 그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갈 것이다.

날마다 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살아보려는 지속적 노력은 보이지 않게 우리 체질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무언 중에 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하루 종일 내려 만물을 싱그럽게 만들어준 가랑비처럼 은유와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지속적이고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X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